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 2 호

총무위원회회의록

남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10:00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기획예산과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미디어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 1 면
- 기획예산과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미디어정보과

(개의 10:0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3쪽 일반현황과 95쪽서부터 101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5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 번째 과제는 민선8기 구정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로드맵 구현입니다.

먼저 구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정원관리를 위해 추진사항 보고회 및 공약사항별 관리 카드화를 통해 구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공약 추진을 위해 남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기준 인건비를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에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소통 중심의 구민행정 시스템 구현으로 구민 중심의 자치분권 및 협치 실현

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백서 등 구정 현황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를 수시로 추진하여 제안제도 운영 및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다섯 번째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간 다양한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협력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두 번째로 계획적·적극적인 재정 운영 및 투명성 제고 분야입니다.

구민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구민의 일자리 창출, 주민 건의사항 및 숙원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편성과 지방보조사업, 투자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중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109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속 추진하여 민생경제 안정 관련 예산 집행 및 이월, 불용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 운영과 110쪽입니다, 2월과 8월에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재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 등을 통해 재정활동을 최대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회계감사인 지정과 경영목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사업 정기검사 등 구민의 편익과 이용증진을 위한 공단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세 번째로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구민체감 행정 분야 추진입니다.

부서별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체계적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평가를 추진하여 우수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113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밀착형 규제애로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토록 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세 번째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구민체감 만족 실현을 위하여 정부 혁신 및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우수사례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역량강화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네 번째로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통계행정 확립 분야로 먼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조성을 위한 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두 번째로 법률자문영역 확대와 소송수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법률자문, 중요사건의 고문변호사 지원과 직원의 업무 능력에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통계로 보는 남동자료를 구축하여 구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며 2022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117쪽 우리 구의 인구, 사업체, 사회보장, 문화 분야 등 2022년도 기준 기본 통계자료를 작성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예산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 전반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023년도 예산 제가 짧게짧게 잠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봤더니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 물론 애로점이 있으신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짤렸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구정에서 예산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 부분 알고 있지만 구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들은 좀 도시관리과도 업무보고 상에서 그냥 차단된 예산들이 많이 보이고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부분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 안 되면 본예산에 안 되시더라도 추경에라도 각 과와 소통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좀 잘 맞추셔서 세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일회성 경비라든지 아니면 행사성 경비를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와닿는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성실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15쪽 보면 우리 115에서 뒤로 가다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이유경 위원

이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3년입니다.

○이유경 위원

3년 하고 다시 재위촉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2018년도부터 지금 몇 분 계세요, 고문변호사?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이유경 위원

다섯 명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이유경 위원

그럼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고문변호사 분 이름하고 임기하고 경력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소송별 현황있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거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항에 대해서 인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번 소래포구축제 때 국내 도시는 이제 물꼬를 다시 튼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외, 국외 도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또한 인제 국외 도시 자매결연지가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왕래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이후로도 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새로 개척하거나 이런 곳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현재 국내 자매도시는 6개가 있고요, 현재 국외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국입니다, 지금 3개 도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외 자매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성양구가 2000년도 12월에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 하고 17년도에 우리가 교류를 한 중국 용정시라든지 아니면 중국 중카이고 신구라고 두 도시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선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이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중국 쪽하고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인제 저희가 지리적으로 보면 남동산단이라는 국가산단을 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뷰티산업을 하는 산단이 있어서 고거에 발맞춰서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와 한번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저희들이 이제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어요.

우호도시를 맺었다가 이제 자매결연을 맞으면 국외 자매도시가 되는건데 지금 국외 자매도시는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성양, 용정, 중카이 신구가 있고 우호도시는 아마 역시 중국 쪽에 펑라이라고 유방시, 그리고 짜이쩌우라는 교주시가 같이 있습니다.

물론 산둥성에 전부 밀집이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님들 오래 의정활동 한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성양구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시민절 때 우리가 서로 교류단을 만들어서 서로 방문교류단도 이루어지고 과거에는 홈스테이라고 그래서 약 20명 정도의 우리 남동구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일주일씩 가고 또 중국의 성양에 있는 실험제2중학교 학생들을 또 15명 내지 20명 와서 일주일 정도 이쪽 홈스테이 쪽에 우리 희망하는 남동구 가정에 또 이렇게 해서 교류가 활성화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대적인 게 많이 변했죠.

또 우리 남동공단에서 중국 청도 쪽에 상당

히 많은 기업이 진출됐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거의 또 철수한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국외 자매도시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중국 쪽에 집중되지 않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국외 자매도시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대부분 국제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법률이 폐지되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선정할 때는 교민회 같은 데 이런 쪽을 통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조금 남동구 위상에 맞는 서로 윈윈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가까워야 돼요, 너무 멀면 가기가 힘듭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조금 민선8기 때 한 번 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적정한 도시와 추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정책기획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에 맞춰서 탄력적 조직개편을 실행을 해서 11월부터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대로 조직이 잘 운영되고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잘 진행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100%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 조직 중에서도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을 한 건지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조직진단은 실제적으로 요번에 11월 1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민선8기는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거는 상하반기로 직무분석은 매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서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실제로 업무가 다 있을텐데 직무분석을 다 통해가지고 그럼 거기는 실제적으로 직원 한 명이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적정성있게 확보토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직무분석은 조직개편은 안 하겠지마는 직무분석은 상하반기 연 2회는 계속적으로 실시는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 얘기는 인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뭐 정량평가를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물론 정무평가는 저희가 의회에서 하겠지만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안이 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개인별로 해서 직무분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러면은 그 평가안이 있다면 자료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119쪽에서 143쪽 일반 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젝트를 통해 90개의 기업지원 5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천시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에 9:1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48쪽 뿌리산업특화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인천시와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협력하는 5개년 사업의 4년차 사업으로 뿌리산업 구인기업의 구직자 발굴 및 뿌리산업 채용행사 지원을 위해 전담 상담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은 현재 남동산단은 간선, 급행, 지선버스 총 1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절대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여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7개 노선 10대의 버스 운행으로 남동산단 근로자의 교통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9쪽 경력단절여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2022년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방과후학교 코딩영상과정과 치과진료 실무자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1명의 퇴직자를 채용하여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청년 친화 정책으로 안정된 청년의 삶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수립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의 날 행사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3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 및 남동구 스타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확장 이전된 논현동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만부마을창업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55쪽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업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미디어 창작 시설장비 대여사업과 청년 영상 콘텐츠 아카데미 3기 사업, 청년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문화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58쪽 푸를나이 JOBCON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이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연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에서 24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청년기본법 및 조례상의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무주택 및 저소득 기준에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며 2022년 9월 말 기준 약 270여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8월까지 접수를 받아 2024년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및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창업, 경영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매 홍보하고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 남동형 취업·고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구직을 지원하고자 구 일자리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165쪽 유관기관과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찾아가는 열린현장 면접, 동행 면접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60쪽에 보면 푸를나이 JOBCON 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언제 모집을 하고 몇 명이 예정, 내년에 몇 명이 예정되어 있고 한지 일단 여쭤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내년도 2월부터 운영을 하고요,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은 연말 정도부터 모집을, 연말에서 1월 사이에 모집을 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요즘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만 계속 나오더라구요.

근데 인제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에게 공연 및 예술활동의 일자리 마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음악하는 친구들 말고 댄스하는 친구들이나 혹시 마술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같이 더불어서 한팀이 된다면 공연의 완성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다양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음악하는 친구들 말고 다른 분야의 예술 쪽에 친구들을 좀 모집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운영이 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국비사업 공모할 때 지역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션 음악하는 친구들을 양성하고 공연에 이렇게 도움을 줄까하고 그렇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계속 지금 18년도부터 한 5년 동안 계속 음악하는 친구들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계획은 처음에 18년도쯤엔 인원이 많았는데 작년부터 작년, 올해 계속 17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댄스 쪽이나 마술 쪽은 사실 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하게 되면은 내년에 다시 채용을 할 때 아직 준비가 저희가 안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장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17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한 10명 정도는 음악하는 친구들을 뽑고 한 5명 정도는 댄스하는 친구들, 한 2명 정도는 다른 뭐 마술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뽑는다면은 그 친구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인제 음악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구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사업이겠습니다.

다만 인제 현재 지금 저희가 친구들을 JOBCON 청년들이 현재 연습하는 곳이 저희가 따로 연습장을 대여해서 하는데 거기는 인제 음악만을 위한 연습장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인제 댄스라든가 또 마술 이런 공연이 된다면 다른 연습장도 필요하고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업이고 해서 요런 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세요.

○이연주 위원

저는 158페이지 청년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제작 지원비를 제공을 하고 또 멘토를 두어서 제작을 돕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애요.

그리고 이쪽에서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남동구 관련 콘텐츠를 확보해서 구정 홍보를 하겠다 요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미디어에 관심있는 19세, 39세 청년들은 이 정도 수준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멘토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멘토링을 할 계획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여기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미디어센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세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은 영상전문가, 한 분은 또 음향전문가, 또 한 분은 인제 그런 부분들 다하면서 안전시설, 안전 쪽으로도 이렇게 있어왔고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이렇게 어떤 멘토 역할을 하면서 요거는 청년들이 한 5개팀 정도를 선발을 해서 지금 물론 우리 다른 구정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따로 구정 영상을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해갖고 방송송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요 부분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쪽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어떤,

○이연주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지금 활동가 5팀을 선발을 해서 멘토링을 실시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제작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멘토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한을 두

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차라리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은 충분히 자신들만의 어떤 역량을 초보이든 약간의 어떤 기술이 있든 만들어서 차라리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1등, 2등, 3등 해서 그걸 뽑아가지고 상금을 주는 방식이 전 훨씬 더 많은 미디어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우리 남동구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더 많이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다섯 팀을 선정을 해서 이거를 멘토로 수시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도움을 줘서 거기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준다고 했을 때 이게 다섯 팀에 의한 양질의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이연주 위원

조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획력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청소년미디어제작 체험 지원해서 남동구 중고등학생들이 영상 스튜디오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원고를 읽고 또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러한 거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작년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연주 위원

네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사업은 거의 뭐 한 10년전부터 정체되어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뭐 10대들 20대 초반, 뭐 10대도 마찬가지죠, 틱톡이라든지 인스타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우리보다 더 잘 사용해요.

근데 여기 가서 카메라 앞에서 뉴스 원고를 읽고 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게 과연 재미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청년미디어타워에서 청년들이 어떤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원금을 주고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토크쇼 프로그램 와서 학생 리포터로 참여를 한다거나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참여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낫지 이걸 원고를 읽고 듣고 이게 아직까지 10년이 넘도록 그냥 이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23년도 지금 사업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위원님 말씀은 남동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니까 사업 재검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이연주 위원

네네, 왜냐면 청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청년들을 위한 무언가가 없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부분들이 청년 기준에서 생각을 못 하고 조금 더 나이있는 상태에서 또는 오히려 비전문가적인 느낌으로 사업을 예산을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미디어 콘텐츠 제작 신규사업은 어떤 멘토링 그런 부분이 아닌 경연 내지는 그런 공개적으로 해서 어떤 순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푸를나이 JOBC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김은숙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인제 행사장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따로 우리 푸를나이 친구들이 공연을 했고 공연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댄스팀을 거기서 따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훨씬 좋았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건 동감을 하는데 사실 촉박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또 음악하는 친구들이 아마 내년에 아마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연습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촉박하다면 내년에 한 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네, 그리고 이 푸를나이, 우리가 남동문화재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푸를나이 친구들이 남동문화재단 쪽으로 흡수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현재 내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저희가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리고 또 청년미다어타워 운영에 이렇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연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청년미디어타워는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소속되나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아직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유경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이유경 위원

꼭 그런 계획을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문화재단이 출범을 얼마 안 나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위원님, 제가 첨부해서 좋으신 말씀, 김은숙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뭐 저희도 공감하는 같은 말씀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푸를나이 JOBCON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인원과 현재 모집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를 갖고 운영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구비 매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수를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댄스 좋은 어떤 마술 이런 걸 한 팀으로 구성해서 우리 행사 때 이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곳에 제공을 하면 좋은데 지금 17명 정도 인원에 월 210만원씩 주면서 채용하면서 그런 완벽한 팀을 구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근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미디어타워 관련해서 걱정이 위원님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만들어놨는데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위치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 신규사업도 이렇게 내년에 뭐 해보겠다고 넣고 이런 부분 자체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이 지금 설립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초읽기에 들어갔죠,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출범해서 바로 넘어가든 그 이후에 조정을 해서 넘어가든 넘어가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푸를나이 JOBCON 운영은 그거는 인제 고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한 접근하는 부분과 순수하게 문화예술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 문화예술로만 접근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게 되면 국비지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푸를나이가 40명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 푸를나이 친구들이 매일매일 공연을 할 수 없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17명이 잘 돌아가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좀 적어졌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 푸를나이 JOBCON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면 공연문화, 남동구에 공연문화가 너무 젊어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는데 이제 물론 예산 문제죠, 국비도 많이 퍼센테이지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남동구에 가장 특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유지가 5년 동안 잘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잘 하고 사실 좀 확대할 수 있다면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기획사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춤 하시는 분들 부르면 다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청년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또 일괄적이고 또 나이대를 딱 맞출 수가 있으니까 젊은 남동구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위원

지난 청년의 날 행사와 이번에 논현동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많으셨고요, 131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임시회 취지에 맞게 제가 나머지 질책이나 감사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쭐려고 했었는데 저희 입주기업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사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특교금

이라든지 시비, 국비 많이 들어가서 40여억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업 수에 대해서 2019년도 16팀이면 이게 2년 계약이잖아요, 입주기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정승환 위원

그러면 21년까지 계약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총 40팀이에요, 총 육성기업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잠시만요.

○정승환 위원

저희 업무보고 책자 131쪽 살펴봐 주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왜 말씀드리냐면 업무보고 취지인데 좀 더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었어요.

이제 2019년에 16팀이고 2021년에 마무리 21팀 된 게 만부마을 들어서면서 기업 수가 늘어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러면 총 40팀이 된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현재는 23팀입니다.

○정승환 위원

현재는 23팀이고 총 육성기업이 총 40팀이란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정승환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도 총 중복인원 없이 185명이란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네, 그러면 중복, 185명 안에 계속 중복인원이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요거는 누계에서 19년도부터 입주 청년 창업하는 청년들이 입주해서 업체에 있는 대표와 직원들 그런 숫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요게 다 청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전부 다 청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정승환 위원

그리고 멤버십 가입같은 경우도 저도 요거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 가입 명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시설물 이용같은 경우도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위원님들께 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게 저희 멤버십 가입한 인원들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인천시민도 올 수 있고 남동구 청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게 어떻게 이게 집계가 어떻게 되죠,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시설물 이용은 전체 다 누계, 저희가 멤버십만, 멤버십 입주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개방을 남동구 청년, 또 인천시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근데 그걸 집계를 어떻게 하시냐,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대관료 같은 것도 있고요,

○정승환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대관료 같은 거, 유료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입주기업은 뭐 무료긴 하지만은 멤버십 가입한 분들의 남동구 청년은 가령 미팅룸 같은 경우는 1만원 2시간, 최초 2시간 1만원, 그리고 인천시민 같은 경우 2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면서 유료로 하기 때문에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요거는 그러면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여쭙는 걸로 하고요, 요게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인원수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인원수요?

○정승환 위원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시설물 이용한 6만, 누계 6만8천명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환 위원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직전에 자료 요청드렸을 때 확인해본 결과 이 멤버십 가입한 인원은 이용을 한 게 없던데요

거의 대부분 입주기업이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이게 저는 시설물 이용 인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집계되는지 전 이해가, 자료 요구를 보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아서, 요거는 사실 업무보고 해주실 때 위원님들께 좀 명확하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서 제가 요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위원

우리 커뮤니티센터랑 창업지원센터 그냥 일컬어서 청년센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센터에 입주한 입주업체들이 입주 후에 추가적인 어떤 관리를 지금 받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일단 사용료가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게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안에 인제 시설물들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같은 게 발생하지 않고 재산적인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 위탁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같이 또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프로그램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 멘토링 같은 거

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거 작성하는 요령, 또 인제 뭐 초기 창업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교육 등 그렇게 그리고 또 상담도 많이 하고 대표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받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우리 청년들이 아이템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이 개발한 아이템이나 상품을 분석하는 능력, 장점과 단점 분석하는 능력과 실지로 이 상품을 판매가 돼야지만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현장에서 마케팅 부분에서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주한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이나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석을 해서 아니면 마케팅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인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일자리센터가 우리 대부분 고용에 대한 알선 부분을 해주시는 것으로 다들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인제 고물가 또한 고이자율로 인해서 기업들은 점점 일자리에 대한 힘듦을 토로할테고 또한 우리 일자리센터에 대한 수요자는 대폭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올해 평가가 나오겠지만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올해보다 하향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수준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제가 이쪽 어떤 경제 쪽으로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문의하신데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답변할 여력은 안 되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이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어차피 고용노동부라든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올해 예산도 전부 올해랑 거의 비슷하고요,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올해보다는 더 적게, 희망근로라든가 어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고용이 많았는데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일거리는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공공근로는 인제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하향,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현상유지 정도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현상유지 정도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위원장 유광희

민간기업을 알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간 일자리센터에 의뢰하는 기업들이 주로 남동산단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조업이기 때문에 구인난은 항상 있고 또 구직자들도 제조업체는 많이 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뿌리산업을 강조하시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하여튼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 보니까 올해하고 큰 지금 예산 부분 예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 부분은요.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여지가 한계가 있어서 고거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1)

(속개 11:02)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서 173쪽과 174쪽의 일반 현황과 177쪽부터 197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쪽부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주요업무 첫 번째 과제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민·관 안전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 사업으로 온라인 안전교육 채널 “휴우 안전TV” 운영은 안전캐릭터 안전히어로 휴우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로 시청자 주도식 선택형 안전교육으로 흥미 유발 및 참여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쪽에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 개최는 신규사업으로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경시 풍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전분야 자유주제로 그림 그리기를 공모하여 우수작 선정 후 구청 로비에 전시하여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어린이 안전지킴이 일기장 배부 및 실천 수기 공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재난안전골든벨 실시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 상식에 대한 골든벨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둘째 민·관 협력 안전감시망 구축 사업은 안전지킴이 34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전보안관 49명과 함께 안전신문고앱 활용, 생활안전 신고, 안전점검의 날 연계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및 통합방위태세 강화사업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204쪽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 종료시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보병제17사단 607여단 47예비군 관리대대에 대한 예비군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투물자 구입 지원과 예비군 훈련장 시설 정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두 번째 과제는 선제적 재난 예방·대응·복구로 구민의 평온한 삶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서 재난발생 시 실질적 지원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시비 100%를 통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과 여름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관리를 A, B권역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며 노후된 예·경보시설 보수유지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또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과 폭염 안전지대 확보 및 취약군 예방물품을 시비 100%를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강화를 위해서 시특법상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을 관내 건축물, 시설물 중 안전 취약시설물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208쪽에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점검,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취약시설물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을 통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업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안전관리자 배치를 통하여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위험성 평가 등 지도 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또한 산업재해 통계관리와 안전미팅 생활화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사업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대응 매뉴얼 수립과 이행을 추진하고 중대산업재해 위험성평가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으며 211쪽에 중대재해 이해 및 대응 교육을 안전보건관리대상자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사업으로는 남동구청사외 26개 시설에 대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개선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저희 과 네 번째 과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민방위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민방위교육 전자통지를 실시하겠으며 1, 2년차 9,200여명에 대하여는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 사이버교육으로 변경 실시도 고려토록 하겠으며 3년차 이상 24,700여명에 대해서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또한 민방위날 훈련은 재난대비 훈련 연 4회, 지역특성화 훈련 연 2회 등 전국단위 일정에 따라 실시를 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으로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통한 배부를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실정에 맞게 교체하겠으며 화생방 분대장비를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계획으로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실시와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 관정 청소 등을 실시하겠으며 연 4회 음용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무요원 170여명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행정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다섯 번째 저희 과 과제는 CCTV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남동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CCTV 구축 및 개선사업으로 주택가 등 생활안전CCTV 20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5개를 설치하고 41만 화소 저기능 CCTV에 대하여 20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아울러서 주정차단속 CCTV를 방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확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구월4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으로 7개소에 대한 로고젝터를 설치하겠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생활안전 CCTV 폴대에 비상벨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로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사업으로는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무요원 16명을 통하여 시행을 하겠고 시교육청 예산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사업과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유지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UPS 교체, 노후 영상 저장장치 교체, 노후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장비 교체, 장애 대처 서버 교체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시설관리로 구민안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예비군 대대를 방문했었었거든요.

그때 한번 담당직원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는데 그쪽 예비군 대대를 방문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식당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됐다는 말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식사를 한 다음에 차라도 한잔 마실려면 차양막이 설치된 공간을 한 두 개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예비군 대대를 이전에 대한 계획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이전이요?

○반미선 위원

네네,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이전에 대한 뉘앙스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식당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제가 안전총괄과랑 이야기한 것이 차양막 정도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작년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한테 돌아오는 답이 했는지 안 했는지 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건지, 보고를 받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저기 예산 지원요청은 없었어요, 그 분야는.

○반미선 위원

지원 요청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올해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반미선 위원

요청을 안 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받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제가 그때 대대장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이야기했었고 확보를 해서 해보겠노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선거도 치르고 이러느라 바빠가지고 잊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확인해보시고요, 왜냐면 대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식당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식당은요.

○반미선 위원

차양막을 해서 식사하신 다음에 차라도 한잔 드실려면 어떤 앉아있을 공간이 전혀 없노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조사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그 다음 문제 하나는 210쪽이에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도 계속 뉴스에도 나오시죠, 중대재해로 이번에 최근에도 사망을 했고.

근데 제가 남동구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건축과와도 관련이 돼 있겠죠, 건물을 짓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대재해산업 예방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 관할이시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만수5동에 YMCA 건물 짓고 있다가 중단했다라고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고거는 못 들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어,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사건 때문에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와 물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건축과와 관련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고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공사가 지금 계속 중단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사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일반 현황과 227쪽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구민과 소통·공유하는 열린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구의 주요 정책사업과 생활정보 등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우리 구 인터넷 방송국인 남동TV를 통해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방송 참여율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주민리포터 10명을 선발, 영상 제작시 리포터, 패널, 내레이션 등에 참여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구 소셜미디어의 채널별 특성을 살려 구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주 1회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통해 주요 행정정보와 행사 및 공연 안내, 일자리 정보 등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구민의 시선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블로그기자단, 남동샘터 12기를 모집 운영하여 구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형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소셜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남동구 홈페이지는 행정정보 게시 및 홍보와 민원접수창구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45쪽 디지털 홍보 시스템은 구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인터넷방송국의 영상 홍보물과 소셜미디어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게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스마트 행정시스템 및 보안인프라 보강을 위해 보안 취약점이나 공격패턴을 선별하여

차단하는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로 정보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서버접근제어 시스템, 보안 USB 시스템, 무전정 전원공급장치 등을 상반기 중에 교체하여 관련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정보자원 관리 효율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행정포털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노후 컴퓨터 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직원 정보화 교육, 보안 및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구정업무에서 생성, 취득, 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공유하고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구민중심의 디지털 행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고품질 통신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효율적인 업무환경 지원을 위하여 구청사 외곽 CCTV 증설과 청사 내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 등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통신시설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남동구 스마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관내 다중집합시설, 버스정류장, 공원 등 5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접근성이 높은 평생학습관의 영상회의, 원격교육, 정보 검색 등의 스마트한 평생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상반기 중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가계 통신비를 줄여주고 구민의 통신 접근성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남동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남동구 홈페이지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네.

○이연주 위원

네, 그러면 평소 공지사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홈페이지 운영이나 그런 건 우리 자체로 하고요, 위탁을 인제 주고 운영하는 거죠.

○이연주 위원

제가 그냥 궁금했던 거는 그때 우리 소래포구축제 할 때 변동사항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네네.

○이연주 위원

그런데 어떤 변동사항에 있어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게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아무 것도 이제 알림창 같은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문의해오시는 분, 또 다른 타지에서 이렇게 소래포구축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날씨 변화로 인해서 바뀐 부분들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물론 오프라인상에서도 안내는 또 돼야 되겠지만 요즘같은 시대에 보통 이제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 궁금했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서 관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변경된 사항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주 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만약에 어떤 대형 콘서트라도 만약에 뭐 급변했다거나 하면 보통 가장 먼저 찾아보는 곳이 인제 그런 곳인데 홈페이지에서 알림 공지 사항이 없었던 것이 전혀, 예를 들면 홈페이지상에 어떤 시간이 조금 지난 후라도 왜냐면 축제가 기간이라는 게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7)

○출석위원(9인)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김문자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